

산위에마을교회 사역보고

(김광운 목사, 양은아 전도사, 김해나, 김조셉)

안녕하세요, Joshua J & Sunnyo Buck Mission Fund 이사님 여러분 산위에마을교회 김광운 목사입니다. 그동안 산위에마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떠한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Hello, I am Pastor Kim Kwangwoon from City On a Hill Church, and I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the board members of Joshua J & Sunnyo Buck Mission Fund. We are thankful for your prayers and financial support for our chur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work we have been doing and our future ministry plans.

그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2-3 번의 예배와 기도로 이 Dallas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지역의 교회들에 대추수의 은혜가 쏟아 부어 지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 월 30 일 탈북민 선교사 Moses Yeon 을 만나 통일광장기도회를 함께 시작하였으며 저는 이 모임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매주일 저녁 7 시에 함께 모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시작한 4 월 30 일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 여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 구금중인 2600 명의 탈북민의 복송반대를 위한 집회와 침묵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는 날까지 이 기도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래는 통일광장기도회 유튜브 링크과 사진들, 그리고 거리 침묵시위 현장 사진과 한국뉴스 기사 링크 입니다.

So far, we have been consistently engaging in daily worship and prayer sessions, 2-3 times a day, praying for God to open the doors of heaven and pour out His Spirit in the Dallas area, and to bestow His abundant grace on the churches in this region. During this time, on April 30th, we started the Unification Plaza Prayer Meeting in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n missionary Moses Yeon. I am in charge of leading the worship for this gathering. The Unification Plaza Prayer Meeting is a weekly gathering that takes place every Sunday evening at 7 o'clock. We come together to pray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churches of Israel, South Korea, USA, and all nations. Since its first meeting on April 30th, more than 20 members have been consistently participating. Furthermore, we have been conducting rallies and silent protests in support of the repatriation of the 2,600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detained in China. This prayer meeting will continue until the day of reunification. Below, you will find the YouTube link to the Unification Plaza Prayer Meeting, photos, and pictures from the street silent protests, as well as a link to a Korean news article.



"중국정부는 2,600명 탈북민 강제 복송을 중단하고 유엔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The Chinese government must stop forcibly repatriating 2,600 North Korean defectors, comply with the UN Refugee Convention, and guarantee human rights."

• 일 시 : 2023. 9. 21. 5pm • 장 소 : 달라스 다운타운 시청광장 • 주 최 : 델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

- 국민일보 기사 (Kukmin Ilbo article)

[포토]미국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在美 탈북민 연모세 전도사 “북송된 이들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 높다”

입력 : 2023-10-13 09:08/수정 : 2023-10-13 09:44

[Photo] Protes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North Korean Defector Minister Moses Ye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ose repatriated to the North will be sent to prison or political prisoner camps."

Posted: 2023-10-13 09:08 / Modified: 2023-10-13 09:44



재미 탈북민 연모세 전도사(오른쪽)를 비롯 북한 선교 관계자들이 12 일(현지 시간) 미국 달라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On the 12th (local time), North Korean missionary officials, including Minister Moses Yeon (on the right), from the United States held a protest in Dallas, condemning China's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 일 밤 훈춘·창바이·단둥 세관 등을 통해 탈북자 600 여명을 트럭으로 북송했다.

According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on the night of the 9th (October), China sent back over 600 North Korean defectors to North Korea through customs points such as Hunchun, Changbai, and Dandong using trucks.

연모세 전도사는 "북송 작업은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가 호송을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북송된 이들은 감옥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Minister Moses Yeon stated, "There are testimonies that suggest North Korean authorities directly supervised the repatriation operation in China. Those repatriated are at a high risk of being sent to prisons or political prisoner camps," urging attention to the situation.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59559&code=61221111&cp=nv>

- 통일광장기도회 찬양과 기도회 후 사진(Unification Plaza Prayer Meeting Worship and Post-Prayer Gathering Photos)





또한 산위에마을교회는 지난 10 월 17 일 달라스 시청 앞 광장에서 야외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달라스의 가을과 봄 날씨에는 노숙인들이 이곳에 모여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과 같이 산위에마을교회도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이들에게 찾아가 예배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계획입니다. 이 예배모임은 단순히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시청과 협조하여 시청 가까운 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Food pantry, shower booth, baptism pool 의 시설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local worshiper 들을 recruit 해서 24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최소 8 시간에서 12 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Hope City Dallas 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는지 지속적으로 사역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ity On a Hill Church started holding outdoor worship services in front of Dallas City Hall on October 17th. The reason for this is that during the mild weather of Dallas in the fall and spring, homeless individuals gather in this area. Just as Jesus approached the sick and marginalized, City On a Hill Church plans to visit them every Saturday morning, offering worship, providing food, sharing the Gospel, and performing baptisms.

This worship gathering will not just be limited to outdoor worship but has plans for ongoing development. If possible, in cooperation with the City Hall, we are praying to secure a location near City Hall where we can provide services like a food pantry, a shower booth, and a baptism pool. Additionally,

we are praying to recruit local worshipers to conduct worship services for a minimum of 8 to 12 hours a day, not necessarily 24/7. We plan to call this outreach project "Hope City Dallas."

To achieve these goals,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is required. We will provide regular reports on the exact financial needs. We are thankful for your prayers and financial assistance.

- **시청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Worship in front of Dallas City Hall Plaza)**



지난 펜데믹 이후 각 교회의 출석 성도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 3 세계의 한 나라도 아닌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같다는 지인들의 말을 지난 1년 6개월 전 산위에마을교회를 개척할 당시 지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 달라스에 산위에마을교회를 시작한 후 계속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위에마을교회는 또 다른 worship movement 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Let us worship ministry 입니다. Let us worship 은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건물 밖에서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달라스 근교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선정한 후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다니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30 명의 사역자들의 recruit 이 필요하며 야외에서 찬양할 장비들을 구입할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적어도 30 만불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ttendance in churches has significantly declined after the past pandemic. Even while this was happening, about a year and a half ago when we first established City On

a Hill Church in Dallas, Texas, I heard from friends that planting a church in a non-third world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seemed almost like planning for failure.

Therefore, since we started City On a Hill Church in Dallas, we have continuously prayed for the Lord to move the hearts of those who do not believe. As a result, City On a Hill Church is now preparing to launch another worship movement, which is called the "Let us worship ministry." Let us worship is not a ministry that conducts worship services inside church buildings but outside them.

We will first select a place where many young people gather near Dallas, and once a week, we will go there to worship, share the Gospel, and even perform baptisms on the spot. We will also pray together for the sick to heal. To make this happen, we need to recruit at least 30 ministers and acquire equipment for outdoor worship. This requires a budget of at least \$300,000. We will provide specific plans and updates in the future. We will send you updates on details on the planning in the future.

2022년 5월 2일 산위에마을교회가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캐롤튼에 교회를 시작하고 기도회로 매일 지내오면서 아직 저희가족만이 모여 기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나? 또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이 시작한 것이 불보듯 뻔한 이야기였나? 와 같은 생각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오히려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게 되고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의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위에마을교회의 모든 사역과 주님께서 보내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n May 2, 2022, City On a Hill Church started a church in Carrollton, which is 30 minutes north of downtown Dallas. We have been gathering daily for prayer, with only our family coming together at this poin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we have questioned whether we made a wrong choice, if the timing of planting the church was inappropriate, or if starting without fellow believers was a challenging decision. However,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we have found ourselves seeking the true essence of the church in the Bible and striving to act accordingly.

Rather than planting a church based on the number of believers, we are dedicated to becoming a church that genuinely proclaims the Gospel and is devoted to prayer, shining as a light in the world. Please pray for City On a Hill Church, that it would become a beacon of light in the world through all our ministries and the lives of believers that the Lord will send our way. We will continue to provide updates. Thank you very much.

10/20/2023

김광운, 양은아, 김해나, 김조셉 드림

Paul Kim, Una Yang, Hannah Kim, Joseph Kim